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보도 일시	2023. 1. 26.(목) 14:00 < 1.27.(금) 조간 >	배포 일시	2023. 1. 26.(목)
담당 부서	산업정책관	책임자	과 장 이민우 (044-203-4210)
	산업정책과	담당자	사무관 박광일 (044-203-4215)

산업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산업대전환 본격 추진

- 기업투자, 인재양성, 생산성, 기업환경, 국제전략, 신(新)비즈니스 등 산업계 난제 해결 위해 6개 분과 좌장회의 개최

- 민관 합동 200일 프로젝트 개시, '23년 상반기 「산업대전환 전략」 발표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는 1월 26일(목) 1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「**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**」를 개최하였다.

○ 작년 10월 말 민간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산학연 관계자 백여 명이 모여 **산업대전환 포럼을 구성**하고 투자, 인력, 생산성, 기업환경, 글로벌전략, 新비즈니스 등 6개 분과별로 논의를 시작하였다.

○ 이날 행사는 민간 좌장 6명과 정부가 함께하는 **첫 번째 전체 회의**로, **산업대전환의 필요성**과 **대응 방안**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.

<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 개요 >

- **일시/장소 :** '23.1.26.(목) 14:00~15:30 / 대한상의 EC룸
- **참석자 : (정부)** 산업부 장관, 산업정책실장, 산업정책국장
  (좌장) 최중경(동국대), 김우승(한양대), 박재완(성균관대), 박일평(LG사이언스파크), 김현석(삼성전자), 이성용(아서디리틀)
  (간사기관) 대한상의, 한국경영자총협회, 산업기술평가관리원, 전국경제인연합회, 무역협회, 산업연구원 담당자

1. 산업대전환 필요성

□ 산업대전환 포럼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2000년대 이후부터 우리 산업이 '**잃어버린 20년**'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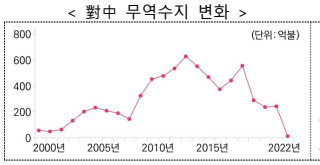
○ 우리 산업은 과거 20년간 **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실패**하여 10대 품목 중심의 수출, 생산구조가 고착화되었다.

* ('00) 반도체, 컴퓨터, 자동차, 석유제품, 조선, 무선통신기기, 합성수지, 철강판, 의류, 영상기기
('21) 반도체, 자동차, 석유제품, 합성수지, 조선, 자동차부품, 철강판, 디스플레이, 무선통신기기, 컴퓨터

○ 반도체, 디스플레이, 배터리를 제외한 주력상품 대부분은 후발주자인 **중국의 추격에 직면**하였고, 특히 주력 수출시장인 **중국**에서는 **메모리 반도체 등 소수 제품만** 간신히 경쟁력을 유지중이다.

○ 그 결과, **對中 무역수지**는 **'18년부터 지속 감소** 중이고, 반도체 제외 시 對中 무역수지는 **'18년 약 180억불 흑자**에서 **'22년 약 240억불 적자로 전환**되었다.(반도체 착시효과)

< 對中 무역수지 변화 >



< 반도체를 제외한 對中 무역수지 >



□ 이에 따라, **우리나라의 10년 후 미래 먹거리**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, 이대로 가면 **우리경제**가 현재 수준에 정체되거나 **산업 선도국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**를 제기하였다.

○ 특히, OECD가 우리나라 **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** '30~'60년 기간 중 **0%대(0.8%)로 추락**해 38개 회원국 중 **최하위**가 될 것으로,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 실질 GDP가 현재 세계 10위이지만 '30년에는 **인도네시아, 브라질**에, '50년에는 **멕시코, 사우디**보다도 뒤처질 것으로 전망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.

□ 이에, 한국 경제·사회가 가진 다음과 같은 **구조적 문제를 지금부터 개선하지 않으면 10년 후 닥쳐올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**고 평가하였다.

산업대전환 민간 포럼에서 우려한 10년 후 위기의 징후

(위기 1)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나라

□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생산연령인구는 많은 반면 부양인구는 적은 '**인구 보너스**'를 활용하여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,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며 '**인구 오너스**'를 걱정할 처지이다.

※ 인구 오너스 :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고 부양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

* 주요국 생산연령인구 비중 전망: ('22년) 한국 71%, 중국 69%, 미국 64.9%, 일본 58.5%
('40년) 한국 56.8%, 중국 62.9%, 미국 61.5%, 일본 53.8%

□ 국내에서 어렵게 양성한 **핵심 인재는 미국·중국 등으로 이탈이 우려**되며, 특히 반도체,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의 **해외 경쟁업체**들은 우리보다 **3~4배 높은 연봉**을 제시하며 노골적으로 **인재를 유치하고 있다**.

* 두뇌유출지수(IMD, '20) : (美) 6위, (獨) 9위, (日) 27위, (中) 40위, (韓) 43위

□ 한편, **외국 전문인력 활용도**는 OECD **최저 수준**이며, **외국인 단순 기능 인력**에 대한 국민적 정서도 우호적이지 않은 편이다.

* 2020년 외국 출생 인구비율 OECD 37개국 중 34위: OECD 평균 14.1%, 한국 2.4%
* 외국인 취업자 중 단순인력 비중이 코로나19 입국자 제한 이전까지 60% 상회

□ 대학진학률은 OECD 최고수준인 70%에 달하지만, 낡은 교육체계와 각종 규제로 **글로벌 수준의 인재 양성에는 한계**가 있으며, 기업은 자구책으로 **직접 인력양성에 나서고 있는 상황**이다.

(위기 2) 급속한 해외투자 증가로 산업공동화 우려

□ **국내기업의 해외 투자**는 **매년 10% 이상씩 증가**하며 가속화되는 반면, **외국기업의 국내 투자**는 **해외투자의 절반**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다.

* 해외직접투자 추이(억불) : ('15년) 304 → ('17년) 449 → ('19년) 644 → ('21년) 759
* 외국인직접투자 추이(억불) : ('15년) 168 → ('17년) 230 → ('19년) 233 → ('21년) 295

○ 한편, 국내 제조업 투자는 '17년 이후 **100조원대**에 머물러 있다.

* 제조업 설비투자(조원) : ('15년) 85.7 → ('17년) 106.0 → ('19년) 89.4 → ('21년) 100.2

□ **시대역행적 규제**, **정부의 인허가 지연**, **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인센티브**는 기업의 국내 투자를 가로막는 **3대 요인**이다.

○ **금융시장 건전성,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등이 대폭 개선**되었음에도 **경제력집중 방지 규제는 '80년대 수준**에 정체되어 있고, **'갈라파고스 규제'**로 자동차 유상 운송 서비스, 안면인식 결제 등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중 1/3은 **한국에서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한 상황**이다.

* 자회사·손자회사의 지분율 규제, CVC 규제,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금지 등

○ **첨단산업 투자는 속도가 핵심**인데, **용인 반도체 클러스터**는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투자의향서 제출 후 **착공까지 4년 이상이 소요**되었다. 반면, **삼성전자 美 오스틴, SK하이닉스 中 우시 공장**은 **부지선정 후 공장 가동까지 2년**이 채 걸리지 않아 우리와 속도경쟁력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.

○ **주요국은 첨단산업 투자유치**를 위해 보조금, 법인세 인하, 세액공제, 토지 무상 지원 등 **모든 정책수단을 동원**하는 반면, 우리나라는 **미흡한 지원**으로 잠재적 투자 기회를 잃을 우려가 있다.

* 반도체 시설투자 지원: (미국) 세액공제 25%, 투자보조금 30억불/건,
(일본) 투자보조금 40% 지원, 기금 6천억엔 ↔ (한국) 세액공제 8~16%(15~25% 상향 추진)

(위기 3) 후진적 기업환경으로 인한 기업 부담의 고질화

□ **대립적·후진적 노사관계**는 기업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.

○ **미국, EU는 자동차공장 유치·건설에 사활을 걸고 신속하게 진행**하는 반면, 국내에서는 오랜만에 자동차공장 신설 결정에도 불구하고 **노사협의 등으로 속도감 있는 공장설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.**

○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노조의 **과격한 파업과 직장점거**는 경제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, **중대재해처벌법** 등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**위협적인 기업환경**은 기업가를 위축시키고 있다.

□ **성장 역행적 규제와 지원제도**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**지원은 줄어들고 각종 규제·비용부담은 급격하게 증가**시켜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.

□ **반기업 정서**와 **이익집단의 막무가내식 요구**가 맞물리면서 **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소위 '떼법'**이 만들어지면서 기업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.

(위기 4)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, R&D는 밀빠진 독에 물 붓기

□ 우리나라는 **세계 1위 GDP대비 R&D투자**와 **인구대비 연구인력 규모**를 자랑하고 있다. 하지만 R&D가 실제 사업화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는 **'코리아 R&D 패러독스'**가 고착화되었다.

* R&D과제 성공률 99% ↔ 사업화 성공률 43.7%

□ 반도체, 배터리 등 일부 첨단산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**美·日 기술 수준**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, **AI, 양자 등 미래전략산업** 핵심기술은 오히려 **중국**이 압도적으로 앞서나가고 있어 우리 산업의 인력·투자 감소 상황을 반전시킬수 있는 히든카드의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.

* 기술수준평가(KISTEP, '20/IITP, '19): (인공지능) (中) 91.8 〉 (日) 88.2 〉 (韓) 87.4
(양자) (中) 93.2 〉 (日) 90.4 〉 (韓) 62.5

(위기 5) 복잡해지는 글로벌 대외환경

□ 우리 제조업은 과거 30년간 중국을 생산공장이자 최대 수출시장으로 활용하여 성장을 이어왔다. 하지만, **중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고도화로 과거 성장전략의 유효성이 약화**되고 있다.

□ 또한, **미-중간 기술 패권경쟁**과 **자국우선주의**는 대외무역 및 對中 분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에 공급망 차질 우려와 경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.

2. 분과별 논의 진행상황

□ 산업대전환 포럼의 간사기관들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현재 논의중인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.

○ **투자 분과**는 첨단투자에 대해 업종별 경쟁국을 지정하고 경쟁국 이상의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**투자인센티브 총액 보장제도** 및 **국가투자지주회사**(K-테마섹) 설립, 규제에 대한 **산업영향평가 제도** 도입 등을 논의중이다.

○ **인력 분과**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**교육규제 쇄신** 및 **기업참여 확대**, 인력 수요전망 및 공급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**국가 산업인재뱅크** 설립,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·정착을 위해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**우수인재 레드카펫 프로젝트** 등을 제시하였다.

○ **생산성 분과**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**급소기술 발굴 및 지원방안**, 정부출연연구소의 **기업지원 역할 강화** 방안, AI공급망으로 밸류체인 전체를 지능화하는 **마더팩토리 프로젝트** 등을 발표하였다.

○ **기업생태계 분과**는 기업가정신이 함양된 미래 국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**교과서 개편** 및 **기업현장 연계 학생 교육 프로그램**(한국형 오슬로 아젠다) 도입 방안과 기업의 성장성·혁신성에 비례한 **기업 지원 제도로의 개편 방안** 등을 논의중이다.

○ **글로벌전략 분과**는 여전히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**중국**과의 **고급소비재, 서비스, 수소** 등 협력분야의 확대 및 고도화 방안과 함께 **아세안·인도·중동** 등 새로운 **수출·투자 시장 개척전략** 등을 논의중이다.

○ **新비즈니스 분과**는 글로벌 선도기업의 사업 동향과 탄소중립, 건강, 삶의 질 등 미래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**유망 비즈니스를 발굴**하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있다.

□ 발표자들은 금일 발표한 내용은 **자유로운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제시한 것**으로,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**구체화해 나갈 계획**임을 밝혔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"우리 경제가 대외적으로는 **자국우선주의, 미중 갈등, 첨단산업 유치경쟁**으로, 내부적으로는 **투자·인력 감소, 혁신 정체**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"고 말하면서,

○ "**산업혁신**을 통해 지금의 **위기를 돌파**하고 우리 산업을 **흔들리지 않는 경쟁력 기반**에 올려놓아야 한다"고 강조했다.

□ 산업대전환 포럼은 **민관 합동의 200일 프로젝트**로 추진되며, **첫 100일**은 **민간의 자유로운 논의**로 진행될 예정이다.

○ 산업통상자원부는 **이후 100일**간 관계부처와 함께 **민간제언을 정책화**하여 「**산업대전환 전략**」을 수립할 계획이다.

첨부 **산업대전환 포럼 구성현황**

부 문		간사기관	좌장	PM
투자	투자특국(特國)	대한상의	최중경 (동국대)	정은미(산업연)
	금융혁신			구자현(KDI)
	투자허브			오준석(숙명여대)
	제도혁신			이광호(과학기술硏)
인력	매칭허브	한국경영자총협회	김우승 (한양대)	윤동열(건국대)
	미래인재			서종현(한국공학대)
	워킹 인 코리아			이철희(서울대)
생산성	초격차 R&D	산업기술평가관리원	김현석 (삼성전자)	임영목(전략기획단)
	AI 내재화			송병훈(전자기술硏)
기업 생태계	기업가정신 부흥	전국경제인연합회	박재완 (성균관대)	정대율(경상대)
	기업 성장사다리			양준모(연세대)
글로벌 전략	new partners	무역협회	이성용 (아서디리틀)	홍상수(무역협회) 김정곤(KIEP)
新 비즈니스	비즈니스 to 산업	산업연구원	박일평 (LG사이언스파크)	안현실(한경 AI경제硏)